

【해 제】

내선만문화좌담회*

서재길**

1940년 1월 『만선일보』는 ‘만주조선인 문학 건설 신제창(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이라는 제목으로 만주국 내의 조선문학의 지향에 대한 일련의 논설을 게재한다. 『만주연구』 34호에 자료로 소개한 바 있는 이 논설들은 조선인이 문학을 통해 만주국의 문화 창달에 기여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복합민족국가’를 지향했던 만주국의 ‘국가 만들기(nation-building)’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¹⁾

이 연재가 끝난 직후 『만선일보』는 만주국을 구성하는 주요 세 민족 곧 ‘선계’, ‘일계’, ‘만계’를 대표하는 문화인들이 참가하는 좌담회를 주최하기도 한다. 조선인을 포함한 여러 민족의 문화인들이 공적인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만주국 문화에 대해 논의한 거의 유일한 좌담회로 평가받는 이 좌담회는 1940년 3월 22일 신경의 대흥(大興) 빌딩에 있는 만주문화협회에서 개최되었으며, 일본 작가인 스키무라 유조(杉村勇造)가 사회를 맡았다. 이 날의 좌담회는 ‘내선만문화좌담회(內鮮滿文化座談會)’라는 제목으로 1940년 4월 5일, 6일, 8일, 9일, 10일자 『만선일보』에 총 6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좌담회에 참가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본 쪽 인사로 스키무라 유조 외에 작가이자 번역가인 오우치 다카오(大內隆雄), 작가 요시노 하루오(吉野治夫), 나카 켄레이(仲賢禮)가 참여했고, 중국 쪽(만계)을 대표해서는 작가 쉰칭(壽靑)과 첸송

*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2S1A5A2A03048910).

** 국민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1) 서재길, 2022, 「해제」 만주조선인 문학 건설 신제창, 『만주연구』 34.

링(陳松齡)이 참가했으며, 조선인 쪽에서는 시인인 박팔양과 백석, 극작가 김영팔, 소설가 이갑기와 이마무라 에이지(今村榮治)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호 『만주연구』의 특집에 실린 최일·왕슈위안의 논문 「'선계 문학(鮮係文學)': '만주국'에 있어서 조선인 문학의 존재 양상」이 잘 분석하고 있듯, 이 좌담회에서 세 민족의 문화인들은 만주국 국민문학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으로, 조선문학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에 대해 검토하면서 조선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와 조선문학의 일본어 번역, 그리고 조선어 글쓰기의 의미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일본 쪽 문화인들은 주로 조선 문인의 일본어 글쓰기를 강조했지만, 중국 쪽에서는 일본어 번역을 통한 조선문학의 만주국 문단 내 소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조선 작가들은 만주국 문단과 조선문학의 관계에 대해 이들과는 결이 다른 태도를 보였다. 즉 이들은 만주의 생활을 조선어를 통해 담아내는 새로운 문학을 구상하면서 그것이 일본 제국의 문학이나 식민지 조선의 문학과는 다른 독립국가로서의 만주국 국민문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주국 건국 이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줬 만주국 문학장 속으로 조선문학을 편입하려는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내선만문화좌담회」는 그러나 그 의도와는 달리 각 민족이 가졌던 상이한 만주국 국민문학의 상(象)을 노출하고 마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만주의 조선 문인들은 만주국이 표방하는 '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이데올로기를 전유함으로써 민족적 차별을 부정하는 한편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탈아입구(脫亞入歐), 일선동조(日鮮同祖), 내선일체(內鮮一體), 선만일여(鮮滿一如), 대동아공영(大東亞共榮) 등 제국의 확장과 함께 제시된 일본의 지정학적 슬로건이 실제로는 상충하는 내용으로 변모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오족협화' 역시 매우 허술한 현실적 토대에 기반한 것이어서, 각 민족의 독자성에 기반한 만주국 국민문학이라는 구상 역시 언제든지 제국 일본의 국민문학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것이었다. 적지 않은 재만 조선 문인들이 이후 '대일 협력'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소개하는 '내선만문화좌담회'는 당시 '일계' 및 '만계' 문단

의 조선 문학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한편 재만 조선 문인들이 만주국의 문화 장 내에서 조선문학을 어떻게 사고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자료소개】

〈일러두기〉

- ◆ 아래 자료는 1940년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만선일보〉에 ‘內鮮滿文化座談會’라는 제목의 특집으로 연재됐던 좌담회를 입력한 것이다.
- ◆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입력하되, 가독성을 위해 현대 어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했으며 문장 끝에 마침표를 추가했다.
- ◆ 자료의 각주는 설명을 위해 입력자가 추가한 것이다.
- ◆ 오기가 분명해 보일 경우 입력자가 본문을 수정했다.
-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했다.
- ◆ 자료입력: 국민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우정덕

內鮮滿文化座談會

內鮮滿文化座談會 (一) — 1940.04.05.

滿日文化協會와 滿洲文化

場所 本社 學藝部

主催 大興珉 滿洲文化協會

時日 三月 廿二日 午後 四時 半

〈參席人〉

內地人 側

滿日文化協會 常務主事 杉村勇造

新京日日新聞社 (作家) 大內隆雄

滿洲文活會 (作家) 吉野治夫

協和會 (作家) 仲賢禮

滿系 側

民生部 (作家) 爵青

滿日文化協會 (作家) 陳松齡

鮮系 側

協和會 弘報課 (詩人) 朴八陽

國務院 經濟部 (詩人) 白石

放送局 (劇作家) 金永八

滿洲文活會 (作家) 今村榮治

滿鮮日報 李甲基

本社 側

社會部長 申彥龍

▲申 公私 間 多忙하신 가운데 이와 가치 와 주신데 對하여 于先 感謝의 뜻을 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하신 분들은 모다 滿洲文化를 하여 第一線에서 活潑한 活動을 하고 계시는 錚錚한 분들로서 實로 內, 滿, 鮮의 最高 文化人이 한자리에 모힌 것은 오늘이 처음이며 將來 永遠히 紀念할 意義 있는 會合인 줄 맞습니다. 從來 鮮系 側으

로서도 內, 滿系 文化 團體 或은 文化人과의 接觸이 업섯든 것을 매우 遺憾으로 여겨오든 차에 滿日文化協會의 斡旋으로 오늘날의 機會를 어든 것을 거듭 感謝하는 바입니다. 오늘날의 이 모힘이 楔機로 되어 今後 日滿鮮 各系의 緊密한 文化的 交涉이 깊혀져서 滿洲文化 建設에 큰 貢獻이 잇기를 바라 마지안습니다. 簡單하나마 人事의 말씀은 이만으로 하고 오늘날의 司會를 杉村 先生에게 附託합니다.

▲杉村 滿日文化協會에 잇는 關係로 于先 滿洲에 잇서의 文化運動 特히 文藝運動의 概略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問題를 展開하도록 하는 것이 엇더할가 합니다.

▲杉村 于先 機構上으로 보면 文化運動의 中心 機關으로 滿日文化協會가 있습니다. 이 協會에서는 事業으로 出版 圖書館 博物館 等の 經營 等을 하는 外에 여러 가지의 調査를 하고 있습니다. 會員은 滿洲 側은 各界의 學者 各部 大臣 等 政府 要職의 名士 等を 網羅하고 日本 側은 各 大學의 教授 等이 加入해 있습니다. 이 協會의 所屬機關으로 文藝團體 "文話會"가 있습니다. 文話會는 全滿 文學者의 綜合的 連絡 等을 하는 것으로 過去에 大連에 잇섯든 本部를 新京에 옮기고 支部를 大連 奉天 等に 設置하고 있습니다. 每月 通信을 發行하여 여러 가지의 文藝運動을 報告하는 同時에 會員間의 連絡을 하고 있습니다. 또 一面 文藝的인 放送도 하고 會를 通하여 日本 內地 或은 支那와의 連絡도 하고 있습니다. 現在 會員은 約 四百五十名이고 會員은 日系는 勿論 滿系도 多數 잇스며 또 東京 或은 北京에도 會員이 잇서 漸次 增加의 傾向을 보이고 있습니다. 機關紙는 滿系 側은 『藝文志』로 發行하여 第三回 發行을 하얏고 日系 側은 『滿洲浪漫』을 發行하고 잇는데 이것도 第四輯을 發行했습니다. 이 外에 日系 雜誌 『作文』을 大連서 發行하고 잇고 滿系 雜誌 『新青年』을 奉天서 發行하고 있습니다. 從來 滿系는 奉天의 盛京時報를 中心으로 文藝活動이 活潑하얏는데 近來는 新京이 中央이니만치 中心이 이곳

으로 올라 原稿 等도 相當히 만습니다. 그리고 日界에는 詩의 雜誌도 相當히 만으며 이러한 雜誌 以外로는 滿洲日日新聞 滿洲新聞 滿洲行政 其他 雜誌의 文藝欄을 通하여 文藝 發表를 하고 있습니다.

內鮮滿文化座談會 (二) — 1940.04.06.

朝鮮文學과 內地文壇 — 滿洲에도 朝鮮文學이 紹介되고 있다

- ▲李甲基 文話會에 鮮系도 入會할 수 있습니까?
- ▲杉村 歡迎합니다. 다만 會員 二名 以上の 紹介가 必要합니다.
- ▲李 滿洲에 오신 日系의 여러분들은 大概가 朝鮮을 거저 지냈을 썬이므
로 朝鮮에 對한 認識이 薄弱한 모양인데 朝鮮文學의 紹介는 엇더하
심닛까.
- ▲杉村 張赫宙 氏의 “春香傳”을 滿譯하여 藝文志에 翻譯해서 記載한 일이
있습니다.
- ▲爵青 李光洙 氏의 朝鮮文學概論 藝文志에 譯載한 일이 있고 다음에는 張
赫宙 氏의 “權といふ男”를 譯載할 豫定입니다.
- ▲杉村 朝鮮文學의 單行本은 꽤 出版되어 있습니까?
- ▲李 近來 相當히 만히 出版되어 全集도 몇 게가 나와 있습니다.
- ▲仲賢禮 이번 日本語로 翻譯되어 出版된 朝鮮文學 選集의 水準은 全 朝鮮文
學으로부터 보아 엇져합닛까?
- ▲李 赤塚書房 其他에서 나온 和譯 말삼입니까. 大概是 그들이 現在 朝
鮮文壇의 中堅이니 그러케 보아서 無妨할 것입니다.
- ▲爵青 그럼 現在 朝鮮文壇은 엇더한 傾向과 歷史를 가졌습니까?
- ▲李 近代의 文學으로서 본다면 約 三十 年의 歷史를 가졌습니다. 最初가

文學으로서 부를 수 있는 것은 亦是 李光洙 氏인데 그後 朝鮮文學은 다른 先進國家가 몇百 年을 두고 가져온 歷史的 過程을 三十年에 지나왔스니 實로 踴躍하였습시다. 現在는 亦是 傾向文學의 退潮로 말미암아 實際로 한 時代의 精神史를 代表할 만한 文學的 主潮가 있다고 할 수 업시 되었습시다. 말하자면 主潮의 喪失에서 混亂한 狀態는 東京文壇이나 달은 것이 업슬 것입시다.

▲仲 朝鮮作家가 朝鮮語로 大概 쓰고 있는 것은 日本語로 쓰는 것이 異端視되기 새문입니까. 或은 그것이 主流로 되어 잇기 새문입니까.

▲李 文學의 國籍이나 族籍을 分類할 새 亦즉 文學概論의 課程에 屬하는 일이나마 爲先 그 文學이 씨워진 言語의 族籍이 무엇보담도 第一의 問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케 決定하면 文學의 民族 情緒니 作家의 族籍이 다른 言語에 依한 制作이니 또는 그 素材의 如何로 이야기 는 相當히 複雜性을 가지나 무엇보담 支那文學이기에는 먼저 支那語 文學임이 必要함과 가티 朝鮮文學이기에는 爲先 朝鮮語 文學임이 第一의 條件이겠습시다. 그런 點에서 朝鮮作家가 朝鮮文學을 한 다는 意味에서 朝鮮語로 쓰게 되는 것이며 둘째는 亦是 제 言語에 對한 愛着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치만 內地語로도 안 쓰는 것은 絶對로 아닙시다. 오히려 그들은 期會만 잇스면 內地語 文壇에 進出을 귀하며 李孝石 俞鎮午 李無影 等은 內地語로도 아마 張赫宙와 類가 아닐 마름 熟練한 것을 쓰고 있는 모양입시다.

▲杉村 그러면 엇지하야 內地 文壇에 進出치 안습니까.

▲朴八陽 그것은 進出을 할너도 機會가 업는 關係이지요.

▲杉村 그래요. 그럴 理가 잇나. 亦是 그편에서 積極的으로 進出할 意思가 업는 데 잇지 안는가요.

▲朴 아마 그 關係는 微妙합니다. 朝鮮作家로서는 나가고 싹프나 內地 出版資本과 提携할 形便이 못 된 關係지요.

▲大內隆雄 翻譯物도 이번 東京서 나오는 것이 처음입니까.

- ▲李 아닙니다. 그前에도 약간이 잇섯는 것 가치 記憶됩니다. 金東仁 氏의 短篇 其他 몇 번 잇슨 것 갖습니다.

內鮮滿文化座談會 (三)—1940.04.08.

滿洲國의 文化機關은 鮮系의 活動을 기두린다
— 먼저 積極의 意慾이 必要

- ▲仲 春香傳을 日本文으로 翻譯하면 春香傳의 獨特한 조흔 氣分이 나지 않는 모양이두마노!
- ▲李 春香傳이라고 하셔도 아마 張赫宙의 再作物의 이야기겠쥬. 이건 朝鮮서도 말성이 만이 되었습니다. 원체 이 作家의 考證의 不足 史的 知識의 淺薄이 朝鮮의 人 情緒를 넌 만한 創作의 人 能力이 업는 대 起因되쥬. 아무리 하여도 春香傳이 가진 朝鮮味를 味得하자면 在來의 土版에 依하는 수밖게 업겟습니다.
- ▲大內 ○다, 中等學校를 卒業한 이들의 讀書力은 日文과 鮮文 中 어느 면이 난 모양입니까?
- ▲朴 지금 現狀으로는 次次 日文의 讀書力이 向上되고 있습니다.
- ▲仲 昨年 京城帝大의 朝鮮文 問題로 한새 말성이 잇섯든 모양인데 이것은 政治的 意味로부터 나온 것이 아입니까. 文士들의 意見도 그 裏面에는 이런 것이 잇는 것이 아입니까. 요사이의 學校의 朝鮮語 教育은 엇더합니까.
- ▲李 그것은 政治的인 意味보담도 제 말에 대한 一種 感傷의 愛着에서 나온 것이 큰 理由가 아닐까요. 朝鮮의 現狀은 『南이즘』에 對한 全幅의 支持로 나아가고 잇스니 政治的 意味는 아니겟지요. 文士들의

意見이란 것도 亦是 오래인 生活을 通하여 가져오는 肉體의인 愛情의 發露의 程度를 지나지 안을 것임다. 小學校의 朝鮮語 教育은 強制廢止가 아니라 自發的 形式으로 三學年 以上인가부터 教育을 받지 안습니다.

▲吉野治夫 옛쨌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朝鮮人 作家들이 너무 日本文 創作 等에도 閑하며 翻譯만 하드래도 힘써 하지 안는 것 갓습니다. 爲先 滿洲만 하드래도 朝鮮人 作家 自身들이 먼저 나아와 自己들의 文學을 翻譯하여 紹介할 勞를 가지지 안으면 언제까지든지 滿洲 文化界에서 朝鮮文學을 對할 機會가 적지 안겠소.

▲朴 이 點은 약가도 말했지만 結局 相互 連絡의 不足으로 그러겠지요. 朝鮮人 作家도 이런 것을 바라지 안는 바가 아니니까요.

▲爵青 우리들로서도 朝鮮文學을 對하고 심히요. 그러치만 우리 滿人이 朝鮮말을 모르고 사라서 日本人도 그러니 이 點 朝鮮人 作家 손수 自己 作品을 日文中으로 紹介한다면 滿人들 作家도 日文만 잘 解釋하니 滿文中으로도 翻譯할 수 잇지 안습니까?

▲金永八 그건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滿洲 文化界 말하자면 滿日文化協會나 滿洲文話會에서 그런 翻譯을 알선할 好意가 잇습니까.

▲杉村 好意가 무엇입니까. 滿日文化協會는 滿洲國의 各 民族이 民族 別을 超越한 國家 機關이니 그 點은 걱정할 必要가 업지요.

▲仲 그전에 新京에 蘇星이란 鮮系 文化人이 잇섯는데 그분도 아즉 여러 가지 有義한 活動을 하엿으나 朝鮮의 文壇이나 文化에 대하여 一言半句의 紹介가 업스니 그건 엿전 일일가.

▲李 朝鮮 文壇에 對한 知識이 업섯는 것이겠죠.

▲朴 그런 사람이 만치요. 原體 文壇이란 것 特殊 世界니마름 그 潮流 안에서 살지 안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紹介할 마름 기픈 知識을 가지기는 어렵겠죠.

▲杉村 要컨대 滿洲에 잇서 鮮系作家의 活動이 적은 것은 亦是 鮮系作家의

태만이나 오해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今村 君도 아주 훌륭한 鮮系라도 지금 『滿洲浪漫』 등에 優秀한 作家로 活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個人的 希望으로도 朝鮮作品을 읽고 싶어요.

▲李 그야 作家란 自己의 作品을 한 사람이라도 만이 보여주게 되면 그 만큼 文學을 통한 自己 擴張이 되니 실타고 할 理由는 업지요. 이것은 一 個人이나 一 集團을 통해서도 다름업겠지요.

▲杉村 그러니 만이 活動할 必要가 있지요.

▲金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이것을 機會로 만이 交流하도록 努力하겠습니까.

內鮮滿文化座談會 (四) — 1940.04.09.

國民文學의 建設! 滿洲國에서도 考慮될가 — 文學과 言語論 其他

▲李 滿洲國에 將次 國民文學의 樹立에 對한 무슨 論議라도 업습니까.

▲大內 그런 것을 아직 具體的으로 論議된 일은 업습니다. 그러나 將次 滿洲에는 滿洲 獨特한 文學이 成立되리라고 봅니다. 아직은 日系는 日本文化의 延長이며 滿系는 滿系의 特色을 가진 文學을 가지고 있스나 次次로 滿洲의 地理나 風俗 人文 其他 條件으로 同一한 環境에서 오래 간다면 亦是 滿洲에서 生産되는 文學으로서의 個性을 가져지지 안겠습니까.

▲李 그러면 滿洲에서 國民文學이 創設된다면 그것은 國語의 統一을 必要로 하지 안겠습니까.

▲大內 그야 아직 먼 將來에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겠지요마는 아직은 亦是 各自의 言語를 使用함이 必要하겠지요.

▲李 그러면 그것은 母國의 文學과 儼然히 文學史的 系列를 달이해야 되겠지요.

▲大內 그야 그러치요.

▲朴 同一한 言語를 가지고 쓰드래도 亞米利加 文學은 國家의 相異로서 아주 다른 文學的 族籍을 가지니까요. 勿論 滿洲文學과 日本文學은 이 다음으로 다른 系流를 가지드래도 그것은 英米文學의 分類의 主要 契機인 政治的 系統보담도 단순한 文化的 意味를 썩겠지요.

▲爵青 言語 問題는 그렇게 急히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言語란 原體가 一朝一夕에 通해야 된 것이 아니고 한 民族의 傳統이나 情緒와 짚녀도 짚 수 업는 文化的 表現인 마름 滿洲人 生活의 素材를 滿洲말 쓰지 안는다면 完全히 그 情緒 그 傳統을 傳할 수가 업을 것 갓지요. 이건 朝鮮人 作家로서 張赫宙가 朝鮮 사람을 素材로 取하나 보는 사람으로서는 朝鮮人의 生活이란 것보담도 그 用語의 族籍이 가진 印象이 더 커요. 그럼으로 古丁 氏도 이 點은 熱心으로 主張하며 各自 特色을 各自의 言語로서 表現해야 充分한 發展이 잇슨 뒤에 비로소 最高의 理想을 獲得할 수 잇다고 합니다.

▲今村 朝鮮人은 그러치만 일부러 日本말로 쓰지 안코 朝鮮말을 固執하는 것이 안인가요.

▲金 그러치도 안켓지요.

▲今村 事實 至今 朝鮮人의 生活은 漸次 日本化하여 가며 生活 그 自體가 별서 어느 點까지 日本語와 密接한 關係가 發生하여 充分히 日本語로서 朝鮮生活을 그려도 不自然한 것이 업지 안을가요.

▲杉村 現在 今村 君도 日本語로 朝鮮生活을 그리고 잇서요.

▲仲 生活이 어느 點까지 다른 것은 事實이나 金史良 가튼 사람의 作品에는 漸次 그런 不自然 味가 업서져 가지 안습니까?

▲朴 그 點은 엇덜는지요. 朝鮮서는 小說은 原體 純諺文으로 쓰는 慣習이 잇습니다. 그런데 이번 金史良이 朝光이란 雜誌에 漢諺純文을 試驗

하는 모양인데 이제까지의 눈으로 서러서 그런지 아주 小説을 對하는 것 갖지 안어요. 여간 서먹서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作者로 讀者에게 이런 印象을 주게 하는 것은 自己로서 여간 손해가 아니어요. 文字의 形式을 달이하는대로 어떤 差異가 있는 바이나 生活의 相異한 言語로서 그 生活의 在來로 가졌든 微妙한 것을 讀者들에게 傳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요. 이건 結局 翻譯文學이 얼마나 어렵다는 一般論으로도 歸着되겠지요.

▲仲 그야 그럴 겁니다. 小説은 日本小説이라도 漢字가 적고 漢字가 만으면 엇전지 評論 가튼 印象을 바드니까요.

內鮮滿文化座談會(五) — 1940.04.10.

滿語文壇의 傾向은 『方向 엮는 方面』의 旗幟 — 評論과 文學論 其他

- ▲李 滿洲文話會의 參加資格이나 그 手續은 엇덧습니까?
- ▲吉野 文話會는 個人的 資格으로서 參加하며 參加에는 現在 會員 二人 以上の 保險이 必要합니다.
- ▲李 只今 鮮系로 文話會 會員이 얼마나 됩니까. 일즉부터 鮮系의 文話會에 對한 要望이 있었는데 只今까지 文話會에 鮮系가 적은 것은 鎖國主義를 取한 새문이 아니고 몰랐기 새문입니다. 그것은 주로 諺文으로 發表되었기 새문입니다. 諺文으로 發表하야도 翻譯도 하는 것이 조타고 생각합니다. 今後 만히 文話會에 參加하야 주기를 바랍니다. 文話會를 通하야 各 機關에 發表하고저 합니다.
- ▲朴 그러면 今後 만히 加盟하야 협력 활동함이 조켓습니다.
- ▲杉村 서로 그러한 技能을 가진 사람을 버리지 안토록 努力할 것이라 생

각합니다.

- ▲金 文話會의 發表機關은?
- ▲吉野 文話會 通信을 發行하여 會員間의 連絡을 取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滿洲 浪漫 其他 雜誌가 있습니다.
- ▲杉村 內地文壇과도 連絡이 있습니다. 文藝 新潮 其他에도 發表할 수 있지요.
- ▲李 그러면 滿洲文壇이란 엇더케 됩니까. 內地文壇과 가치 同人雜誌가 있어서 그 雜誌에 發表한 作品이 芥川賞 類를 타게 되면 文壇을 나오게 된다는 이러한 코-스로 됩니까.
- ▲仲 滿洲에서는 文壇을 맨들지 안코 있습니다. 職業作家가 업는 現在가 조타고 하는 意見과 文壇을 맨들나는 意見이 잇스나 나의 意見으로서 是 맨들지 안는 것이 조타고 생각됩니다.
- ▲李 그러면 그것은 滿洲人文壇이나 日系文壇이나 亦是 同一하겠소. 그리고 文化人기리 系別을 음연이 가지게 한다는 것은 조치 못하잔을 가요.
- ▲杉村 政治的 現狀으로부터 보아 各 系別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 ▲洪 高度화된 文化人의 連絡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 ▲吉野 그러닛까 文化人이 第一線에 서서 活動하지 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白石 그러면 지금 滿洲人文壇의 現狀을 말하자면 現勢나 文學傾向이 잇 덧습니까?
- ▲爵青 滿洲文學에는 現狀으로 보아 特別한 傾向은 업습니다. 억지로 말하 면 『方向 업는 方向』 이것이 傾向이라고 할가요. 一定한 方法論이 나 思想的 指標가 업시 다만 그냥 創作하자 創作하는 가운데 무엇 이든지 나오리라 이러한 創作態度이지요.
- ▲今村 滿洲文壇은 그런 意味에서 조화요. 評論家의 귀치 안은 騷音에서 作 家가 自由롭다는 것이 안입니다.

- ▲李 그러치만 評論이나 批評을 그러케 無視하여서야 됩니까. 그런 迷盲한 創作態度는 評論에 中毒한 形式主義에 比하여 反對되는 被害가 亦是 잇을 것입니다.
- ▲仲 그러치요. 全然 批評을 否認하는 것도 조차 못한 傾向입니다.
- ▲爵青 엇젯든 지금의 狀態는 그러습니다. 『方向 업는 方向』.

內鮮滿文化座談會 (完) — 1940.04.11.

滿洲國의 國策은 文學의 健全한 發展을 바란다
— 政治主義 文學의 是非論 其他

- ▲李 滿語文學이 方向 업는 方向이 現狀이라고 하나 그것은 作家들의 創作上의 態度이겠지요. 그러나 方向은 업다 하드래도 製作된 作品에 共同된 一種의 傾向이라고 하는 것은 漠然하나마 업지 안켓지요.
- ▲爵青 그러케 말하면 滿語文學이란 것은 現在 寫實主義의 傾向을 띄우고 잇습니다.
- ▲仲 題材는 주로 農村生活인 모양이쥬.
- ▲爵青 滿洲語 作家란 現在 한 五十名 內外나 이쥬 모두 二十代가 되여서 教養 程度에도 여러 가지 未熟한 點이 만흔 것은 否認할 수 업습니다.
- ▲金 滿洲國에서는 國策 遂行의 過程에 文學을 動員할여는 일은 업습니다.
- ▲杉村 그런 일은 업습니다.
- ▲仲 처음에는 滿洲國에서도 利用하리는 傾向이 만 하 업는 바는 아니엇스나 只今은 民生 大臣 實 其他에서 이 傾向을 그리 尊重하지 안습

니다.

- ▲金 要컨대 文學은 대어까지 文學이니까요.
- ▲仲 그래요. 文學은 藝術이니까 藝術性을 喪失할 程度에까지 國策을 浸透식힘은 政策上으로도 조흔 結果를 보지 못할 것이니까요.
- ▲李 그 前의 所謂 左翼文學이나 獨逸의 아스팔트 文學¹⁾으로 쓴 經驗이 있스니 文學과 政治의 關係의 微妙性은 充分히 檢討하여야 할 것입니다.
- ▲杉村 國策에 버서나지 아니한 것이면 엇던 文學이라도 조치요. 그러나 國策에 逆行됨은 勿論 되지 안켓으며 可及的 作家들은 그 題材를 取하는 대서 藝術性을 喪失치 안는 限 國策에 協力하는 態度만은 잊지 안음이 必要할 것입니다.
- ▲爵青 文學이 政治의 奴僕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政治의 運行을 잇그 러가는 것이 必要하겠지요.
- ▲金 그러면 文學에 對한 滿洲國의 態度는 아즉 우리 생각보담도 寬大한 셈이군요.
- ▲杉村 그러치요. 日前에 城大 教授 辛島 氏와도 여러 가지 이약이가 잇섯 서요.
- ▲李 약가 말삼하신 朝鮮作家들의 紹介에 對하여서는 具體的인 方法은 엇덕가요.
- ▲吉野 翻譯을 그편에서 하야 이곳으로 주시면 이곳 滿洲文話會에서 適當 하게 發表하겠습니다.
- ▲爵青 그리고 우리들 편에서는 滿語로 翻譯하겠서요. 우리들은 제대로 朝鮮文學에 對하고 심흐나 아무리 하여도 말을 모르니 萬一 日本語로 譯만 되면 우리 손으로 滿譯하야 藝文誌 等を 通하야 發表하지요.

1) 독일의 나치가 정권을 잡은 후 대대적인 문학 숙청을 시작하면서 만나치 문학에 붙인 명칭. 나치는 사회주의, 인터네셔널, 코스모폴리탄 성향의 문학을 아스팔트 문학이라고 지칭하고, 이들 문학에는 향토 정신과 국가관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탄압하였다.

▲杉村 그러나 朝鮮作家는 滿洲 在住 朝鮮人 作家를 먼저 하심이 조κειται
다.

▲申 그런대 이것으로 閉會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意味에서 여러분을 이
러케 한곳에 모시여 조흔 意見을 만이 들은 것을 光榮으로 압니다.
그리고 오날 여러분이 하신 말삼은 可及的으로 鮮系의 各 文化人에
게 널리 傳하야 文化를 通한 民族協和에 實을 望할가 합니다.